

‘주도권 축구’ 발목 잡은 ‘최악의 잔디 상태’

‘K리그 잔류’ 광주FC 2024시즌 결산 <2>

광주FC는 이정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주도권 축구’로 불리는 팀 컬러를 유지해 왔다. 이는 강한 압박과 정교한 움직임, 빠른 공수 전환 등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갖고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

상대의 장점을 무력화하고 공격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패스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주도권 축구의 밑바탕이 패스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잔디 컨디션은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광주 선수단은 최악의 잔디 상태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K리그 전반적으로 잔디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주는 유독 문제가 심각했다.

이 배경에는 광주 선수단의 전용 훈련장인 광주축구센터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천연 잔디 1면과 인조 잔디 1면으로 조성한 광주축구센터는 배수 불량으로 진흙탕이 되고 조명 시설도 없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광주 선수단의 숙원으로 꼽혀 왔다.

광주 선수단이 2022년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 2023년 K리그1 3위와 아시아 무대 진출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내

지난 6월 광주축구센터 재조성 개장 2개월 만에 배수 문제 재발 광주축구전용구장 과부하 직결 장성 원정 훈련에 컨디션 난조

면서 구체적인 요구가 시작됐고 결국 광주시와 구단은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연 잔디 2면과 조명 시설, 원격 살수 시설까지 갖춘 전용 훈련장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이 전용 훈련장이 또다시 광주 선수단의 발목을 잡았다. 배수 불량에 재발하면서 완공약 2개월 만에 천연 잔디가 다시 과사했고, 선수단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재조성 공사를 위해 남해로 떠났던 광주 선수단의 배려는 헛수고가 됐고, 공교롭게도 이 기간 직후 6연패에 빠지며 사기가 추락했다.

광주축구센터가 보수 작업을 위해 문을 닫으면서 광주 선수단은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훈련과 실전을 모두 소화해야 했다. 가뜰이나 유례없는 폭염으로 잔디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부하까지 주게 되는 원인이었다.

결국 광주축구전용구장마저 잔디가 크



광주FC 전용 훈련장인 광주축구센터가 지난 9월초 배수 불량으로 인한 천연 잔디 과사로 폐쇄 후 배토 작업 등 복구를 실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게 손상돼 정상적인 훈련과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렀다. 훈련과 경기가 강행됐지만 광주 선수단은 물론이고 상대 팀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고, 결국 이 감독은 교육지책으로 장성 옐로우시티스 타디움을 대체 훈련장으로 받아들였다.

훈련을 위해 왕복 약 1시간30분을 이동하면서 광주 선수단의 피로는 가중됐다. 가뜰이나 리그에서도 이동 거리가 많은 광주 선수단이 훈련에서도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컨디션 난조와 부상으로 연결됐

다. 이 사이 광주축구센터는 잔디 상태를 조금이나마 회복했다. 여전히 측면에는 맨땅이 드러났지만 중앙에는 잔디가 조금씩 피어나가면서 정식 규격의 60~70% 가량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도 또다시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속출하며 광주 선수단은 시즌 내내 속살이를 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시즌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

주축구전용구장과 광주축구센터 모두 보수 작업을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상태를 회복했지만 누더기 잔디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특히 올 시즌이 11월 말 종료됐는데 곧바로 겨울이 돼 잔디 보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광주 선수단은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로 내년 2월 중순이면 다시 실전에 나서야 하기에 복구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치 않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선배들도 인정한 ‘야구 천재’ 김도영

일구회, 최고 타자상 선정
홍세완 코치, 최고 지도자상
“꾸준한 성적으로 또 받겠다”

‘야구 천재’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KBO 리그에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했던 원로들로부터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받았다. KIA 홍세완 타격 코치는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베르사이유홀에서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구상은 타자와 투수를 나눠 매년 가장 빛나는 선수를 선정하는 가운데 김도영은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 타자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도영은 올 시즌 141경기에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하며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했다.

또 월간 10홈런-10도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 내추럴 히트 포더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30홈런-30도루, 100타점-100득점, 쉼터플 트리플(3할 타율-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등 굵직한 대기록을 달성했다.

시즌 직후에는 2024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에 나서 오프닝 라운드 다섯 경기에서 세 차례 홈런포를 포함 타율 0.412(17타수 7안타), 10타점, 4득점, 출루율 0.444, 장타율 1.059를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

도 존재감을 알렸다. 김도영은 시상대에 올라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이 자리에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며 “1년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꾸준한 성적으로 다시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겸손한 자세로 운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세완 타격 코치도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홍 코치는 올 시즌 KIA 타선을 팀 타율과 안타, 타점, 득점, 출루율, 장타율, OPS(출루율+장타율) 선두에 올

려놓은 공을 인정받아 프로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홍 코치는 “선수들 덕분에 큰 상을 받는 것 같고 시즌 내내 역할을 해주신 코치진에도 감사하다. 코치진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이범호 감독님께도 감사하다”며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코치들이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다. 항상 뒤에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1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베르사이유홀에서 열린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최고 타자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안세영이 지난 9일 중국 저장성 인터컨티넨탈 항저우에서 열린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 갈라 디너에서 올해의 여자선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세계연맹 올해의 여자 선수상 2연패

선수들이 뽑은 상까지 2관왕
이용대는 명예의 전당 헌액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22·삼성생명)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선정하는 올해의 여자 선수상 2연패를 달성했다.

안세영은 지난 9일 중국 저장성 인터컨티넨탈 항저우에서 열린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 갈라 디너에서 왕즈이와 한웨이(이상 중국),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 등 경쟁자를 제치고 올해의 여자 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또한 ‘여자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에도 선정돼 2관왕을 달성했다.

안세영은 평가 기간인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해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오픈과 프랑스 오픈, 싱가포르 오픈, 올림픽, 차이나 마스터스 등 다섯 개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특히 무릎과 발목 부상 여파로 올해 11개 대회에만 출전했음에도 랭킹 포인트 10만7667점을 쓸어 담으며 올림픽 직후 휴식기를 가졌던 지난 10월 약 2주간을 제외하고 줄곧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

안세영은 BWF를 통해 “동료 선수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지 못했다. 두 상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제 우승인 이용대 선배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행복했다. 언제나 선수 생활에 가장 큰 동기부여를 주는 많은 응원에도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갈라 디너에서는 화순초·화순중·화순실업고(현 전남기술과학고) 출신 이용대(36·요넥스)의 명예의 전당 헌액식도 열렸다.

이용대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혼

합 복식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복식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것은 박주봉(2001년)과 김문수(2002년), 정명희, 정소영(이상 2003년), 김동문, 라경민, 김영아(이상 2009년), 하태권(2012년), 방수현(2018년)에 이어 이용대가 열 번째다.

한편 안세영은 11일 올해 마지막 대회인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에 돌입한다. 안세영은 조별 예선 B조에서 한웨이, 수파니다 카테통(태국),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준결승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한규빈 기자